환경오염

원인자에 근본 책임

— 주류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환경문제

Ⅰ 도 입

최근에 막을 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보존협약'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어찌됐건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오염되며 어떻게 오염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잘 단속하며 오염물질을 잘 처리하주면 끝나는 문제, 그러므로 자연과학이나 보건위생 또는 법과 관련된 문제 쯤으로 생각해 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고질화하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큰 사조와 결부된 뿌리깊은 문제이고, 따라서 환경문제는 그 큰 사조와 연결해서 이해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를 보는 다양한 견해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류경제학에서 보는 환경문제와 이의 해결책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

환경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매우 다르다.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중에서 흔히 인용되는 견해로는 소위 기술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를 들 수있다.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는 대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생태중심주의(Ecocentism)는 대자연의 한 구성분자로서의 인간과 대자연의 유기적 긴밀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야하며 그럼으로써 인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함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노동을 통한 인간과 대자연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로부터의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계급문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태와 결부된 체제상의 모순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며, 따라서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중심주의는 서구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배계층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상이어서 경제학적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물질을 최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 데카르트의 분석적 사고방식이 그 돌체이며, 그리고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내고 응용하는 것, 즉 행동으로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시장기구의 실패로 대자연 피폐화
인간과 환경 유기적 긴밀성 각인해야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관료들이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중심주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기술중심주의는 크도의 기술과 물질적 소비수준을 인류사회의 진보를 재는 잣대로 삼으면서, 인류사회의 진보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어 이를 경제원칙에 따라 잘 응용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중심주의에서는 인류사회의 진보란 미명아래 인간은 대자연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중심주의가 환경오염문제를 무시하거나 또는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술중심주의는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더 크게 강조한다.

Ⅲ 주류경제학의 환경관

데이비드 프로파(Dabid Properi에 의하면 세 가지 획기적인 과학관이 기술중심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몇 개의 수학방정식으로 자연의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할수 있다고 한 뉴톤의 기계론적 과학관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무한히 분해 가능하며 따라서 이들 물리, 화학적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원자(atom)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과학관이며, 셋째는 다윈의 과학관이 그 셋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한 동시에 과학혁명의 맏거름이 된 위의 세 가지 과학관을 가장 충실히 따른 분야가 신고전이론을 주축으로 한 소위 주류경제학이다. 주류경제학이 최적으로 보는 상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 이용되는 상태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자연또는 환경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 시키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주류경제학은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기구의 기능은 네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즉 어떠한 재화 및 용역을 얼마만큼씩 (재화 및 용역의 종류와 수량), 어떻게 (생산방법),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고 분배하느냐(소비분배)를 가장 효과적으로 푸는데서 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장기구의 기능을 대체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나하면 시장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응분의 댓가를 주고 받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전제하기 때문인데, 소유권이 분명한 재화나 자원을 사거나 이용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셈이 성립하나, 그러나 소유권이 분명치 못한 것들 또는 공유재들은 아무나 함부로 이용하기 때문에 급방 훼손되는 경우를 보게된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환경인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을 외부효과라 한다.

주류경제학에서 외부효과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일종의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한다.

환경문제를 외부효과의 문제로 보는 주류경제학의 환경문제에 대한이에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댓가를 정화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즉, 환경오염문제를 시장기구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이 시장기구의 기능을 보완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 재 혁
〈성서3가·경제학〉

편집권 침해 주인잃은 서강학보

현장보도 — 서강대 학보사 투쟁 현장을 찾아

지난 5월26일 편집권 문제로 반발
주간교수 단독신문제작으로 갈등 첨예화

'…계속 벌어진 서강학보사태, 교지배포중지, 등록금 일방고지 등은 서강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폭선이 난무하는 저잡하고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했던 그 서강은 이제 모두 눈가'를 붙는 대자보가 8월18일, 서강대 정문앞 게시판에 투박한 글씨로 쓰여져 붙어있었다.

이날 학생기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대학신문이 나왔다. 서강대 신문을 알리는 '서강학보' 제호가 붙어있고 공식발간을 알리는 '제 287호' 발행호수도 나와있는데 정작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편집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발행을 책임지는 발인과 운영을 책임지는 주간교수의 이름이 나와있을 뿐이다.

1학기 내내 기획내용들으로 학보사 기자들과 의견충돌을 해오던 김순기 주간교수(경영학)는 제286호(8월9일자) 기획안을 놓고 전면적인 불만을 제기해오며 제작 중지 결정을 내렸고 학생기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4일후 신문을 제작·배포 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많았다. 6월5일자 국민일보에 '서강대 9월 새신문 창간'을 제목으로 서강대에서 9월말에 새신문을 창간한며 이 신문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지역신문의 형식을 갖춘다는 내용이 발표됨으로써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새신문 창간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서강대 학생들과 서강대 대학언론사 구성원들과의 공식적 논의없이 일방언론에 발표한 소식을 접한 학보사 기자들은 총장에게 '지역신문' 진위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의원과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왕화 반대 및 서강학보의 인정적 발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사흘동안 2천5백여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 관심을 보였으며 방학중이던 7월13일 주간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강화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하의 자료집이 교수직원들에게 배포되면서 주간교수이 새신문간행의지는 본격해 지기 시작했다.

89년 문교부의 이른바 '5.6조치'로 처음 등장한 이원화 조치는 기존학보사 성격을 부인하고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을 분리하면서 시대의 양심으로 활동해 온 대학신문의 기간 역사를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발표되어 당시 고대·연대 등 전국의 대학신문사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서강대 새 신문 역시 같은 의도로 제기 되었으며 작년 6·3 사태 이후 학원안정화 대책, 학사개고 제도 부활등의 학원 탄압과 같은 맥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방학중에 학교를 나온 몇몇 학생들로부터 증각적으로 쓰여진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또한 서강학보 기자들은 '서강학보'가 아닌 '자주언론'의 이름으로 속보를 제작·배포했으며 현재 두개의 서강학보 문제로 서강대 교전은 어수선하다.

누구보다도 바쁜게 방학을 보낸 학보사 기자들에게 있어 매체를 빼앗긴 것은 생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학사회에서 대학언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기자들의 권리자율권을 빼앗고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에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사전포석으로써 전국대학신문의 열정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교수, 직원, 학생 3주체를 주인으로 대학사회를 운영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대학신문 여정에만 비판과 관심만이 지본과 권력의 압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서울지역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

時時刻刻

대통령을 낳는 황금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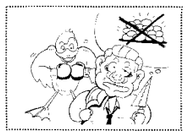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의 생부이 여불위는 일개 상인에서 승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으로 어느날 노인에게 생애를 뒤바꾸게 될 충고를 듣었다.

이는 "권력을 잡아라. 권력을 잡으면 돈과 명성은 따라 올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물질 잔사욕 통한 부의 획득보다 '사람잡사' 즉, 권력의 획득과 치세를 통한 부의 확대가 안전한 보호장치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시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에도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권력은 그만 못시대부터 항상 부패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쉬하고 있었고, 최근 6공정권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고 있다.

그중 재계의 관도를 바글 6공 최대의 이권사업이며 가장 최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현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에는 매계 관련이 아닌 일반의 관심도 집중난 것이 었다.

그러나 장비의 국산화가 낮아 수천억원어치의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시된 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시작부터 온갖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먼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꼭 기업이 기로체는 정부를 두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구설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원에게 커다란 특혜비리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민자당내의 YS는 강호한 어조도 노장조을 비나쳤다.

마침내 노장공과 꼭 기업은 지신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게(?)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여론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다고 발표하였다.

꼭 기업은 마대한 이익이 걸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너무도 쉽게 포기했고, 노정권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재선과정을 차자하여 부도 넘기게 되었다. 한편 너무도 쉽게 [illegible] 기업과 결탁 돌아와 놓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겠노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꼭 기업이 사업권을 초기에 반납한는 경우 YS가 차기 사업자 재선과정에서 꼭 기업에게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부의 도덕성과 정부의 공신력에 치명타가 된 이번 제2이동통신사업에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꼭 기업이 지명될 경우 국민들의 반발로 엄청난 파문이 일것을 잠작고 있는 노정권이 뭐 시비가 높은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의문 또한 YS가 장면과 '꼭'의 측근보다 '권력'을 효율함으로써 처음 그 위세를 통해 황금알을 낳으려는 사기성 짙은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시봉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제2이동통신사업이 대통령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 데에 얽힘할 따름이다.

■DESKJET 500문의 및 해리점 | ★서울 삼성전자㈜ 369) 2402/4, 사업소소협 ㈜ 561-7270, 대산컴퓨시스템㈜ 571-4756/7, ㈜ 아이코랜드 785-2121, 삼성에이터시스템㈜ 560-3052/3 ㈜ 아트로닉스 861-8615, 우주스퍼시㈜ 552-6735, 디스코정보㈜ 546-3500, 희망이엔지㈜ 706-3047, 한신엔지니어링㈜ 511-8618, 소프트랜㈜ 010-9619-5315 3187, 동화구리드기술㈜ 568-7144, 한국정보유통㈜ 780-9864, 한도특업㈜ 747-3161 ★대전 : 금강컴퓨터㈜ 042) 623-4833 ★대구 : 대구정보㈜ 053) 421-3225 ★부산 : 보도㈜ 051) 632-0077